

행동하는 이상주의자·꿈꾸는 리얼리스트 김구의 삶

“우리가 그토록 ‘장소’에 주목한 것은 역사가에게는 현장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역사의 현장엔 영감을 준다. 탐방객들 사이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유행하지만, 그보다는 ‘사랑하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다고 느끼기에, 우리는 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발자취도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 이 글을 썼다. (서문 중에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백범의 길 (1·2권)

김명섭 외 지음



올해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또한 백범 김구 선생(1876~1949) 서거 70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억압과 설움을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에게 김구는 독립운동의 대표이자 상징이었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통일에 대한 염원이 확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국면이 전개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남북 분단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스스로 민족의 문지기라 되겠다 했던 백범 김구는 “18세에 붓을 던진” 이후 시종 유랑생활을 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완전한 자주독립”을 소원하던 그의 발길은 조국의 산하 구석구석에 미쳤고 중국 대륙에까지 이어졌다.

김구 선생 서거 70주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역사와 정치 분야 전문가들이 김구의 발자취를 찾아 떠난 역사 여행기 ‘백범의 길’ (2권)을 펴냈다.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가 기획하고 김명섭 연세대 교수,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 김상기 충남대 교수,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 등 관련 전문가 10인이 필자로 참여했다. ‘조국의 산하를 걷다’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행동

백범 선생 서거 70주기,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투옥 생활 서대문감옥·동학 활동하다 마곡사 피신 이야기 등 역사·정치 분야 전문가가 김구 발자취 찾아 떠난 여행기

하는 이상주의자’이며 ‘꿈꾸는 리얼리스트’였던 김구의 전기이자 답사기이다. 서울·경기·인천을 아우르는 1권과 강원·충청·전라·경상을 포괄하는 2권으로 구성돼 있다. 곳곳에서 백범부부(白丁夫婦·평범한 백성)의 삶을 지향하고 민족의 독립에 헌신했던 인간 김구의 숨결을 만날 수 있다. 김형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은 발간사



김구가 인천감옥에서 탈옥해 수십 일 동안 은거했던 보성 쇠살마을에 있는 김광언 가옥.

육생활을 했던 인천감옥과 서대문감옥도 살았다. 김구의 삶에서 1945년 환국 이후의 시기는 알지못할 때가 끝나고 맞게 된 미소 양국의 대립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으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애썼지만 대의를 이루지 못했다.

2권에서는 동학에 심취해 활약하다가 마곡사 등으로 피신했던 이야기, 도움을 받았던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보은의 길 등 인생 역정을 돌아보는 여정을 담았다. 순천, 보성, 함평, 김제, 전주에서의 여정이 그러한 내용이다.

“백범일지”를 읽다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 한둘이 아니지만, 필자는 이대목이 가장 인상적이다. 40여 일 남짓 머물다 떠나는 생면부지 낯선 타지인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붓 주머니를 이별의 선물로 건네 준 선씨 부부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22세 쫓다니 나이 때 만난 동갑내기들이 48년이 지난 70대 노인이 되어 다시 만났을 장면이 떠올라서다.” (‘보성 김광언 가옥·쇠살마을에서 추억에 잠기고’)

(arte-각 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백수린 외 지음 ‘여름의 빌라’

문학과지성사가 지난 2010년부터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문지문학상’이 올해로 8회를 맞이했다. 문지문학상 수상 작가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12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제8회 문지문학상 수상작품집’에는 수상작 백수린의 ‘여름의 빌라’를 포함해 모두 열한 명의 소설이 실렸다. 김효나, 임술아, 김금희, 박민정, 허희정, 박상영, 오한기, 이주란, 손보미, 정영수가 이름을 올렸다. 독자들은 이들의 작품을 통해 오늘의 한국 소설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수상작 백수린의 ‘여름의 빌라’는 타인을 향한 공감과 이해에 대한 탐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소설은 삼십대 한국인 시간강사, 독일인 노부부과 그들이 손녀 레오니가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서 함께 보낸 며칠간의 여름휴가를 다룬다.

아시아 여성인 ‘나’는 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독일인 부부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그들 사이의 우정에 어떠한 한계가 있음을 체감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후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우정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 그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해냄으로써 끝난다.

심사위원들은 “작가의 섬세하고 집요한 손끝은 타자를 환대하고 그의 고통을 이해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버린 후에도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기억해야 하는지 탐구하는 일에 집중한다”며 “묵직한 떨림을 불러오는 작품에 마침내 심사위원들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평했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에리히 프롬 지음, 강주현 옮김 ‘자기를 위한 인간’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였던 에리히 프롬(1900~1980)은 유명한 책을 남겼다. ‘소유냐 존재냐’, ‘사랑의 기술’, ‘자유로부터의 도피’ 등은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다.

이번에 ‘자유로부터의 도피’의 후속편인 ‘자기를 위한 인간’이 강주현 박사 번역으로 출판사 ‘나무생각’에서 발간됐다. 에리히 프롬은 책에서 개인을 외부의 권력에 종속시키는 철학적 전통에 반박하기 위해 니체의 말을 인용한다.

“그대들의 이웃 사랑은 그대들 자신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다. 그대들은 자신으로부터 이웃에게로 도피하며, 그 행위를 그대들의 미덕으로 삼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그대들의 헌신의 정체를 꿰뚫어 본다. 그대들은 홀로 우뚝 서지 못하고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도 않는다.”

물론 프롬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자신을 향한 사랑이 같지 않다는 니체의 이분법을 동의하지 않았다. 니체가 공격한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 뿌리를 둔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유약함에서 비롯된 사랑이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프롬은 ‘자기’에 대한 잘못된 의미를 밝히고, 진정한 자기가 실현될 때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도 연결된다는 관점을 피력했다.

자기중심주의가 보편적 행복의 기초라는 생각이 경쟁 사회의 기본 원칙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안 된다는 윤리의식도 함께 교육하고 있다. 프롬은 이 모순된 가르침이 현대인을 혼란과 무력감에 빠뜨리는 중요한 원인임을 지적하며 모순된 가치 판단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나무생각·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리처드 플로리다 지음, 안중희 옮김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 뉴욕은 세계적인 도시다. 타임스퀘어는 화려한 광고판이 즐비하고 소호 지역의 상점과 레스토랑에는 늘 사람들이 붐빈다. 그러나 화려하게만 보이는 도시의 이면에는 적잖은 문제들이 놓여 있다.

2013년 기준 뉴욕의 부동산 가치는 약 2조9000억달러로, 세계 5위 규모의 영국 국내 총생산과 같다. 뉴욕 소호의 아파트 한 채는 테네시주 앨피스의 주택 38채와 맞먹는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뉴욕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의 거대 도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세계의 도시들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 책이 출간됐다. 뉴욕대 글로벌연 구 교수인 리처드 플로리다가 발간한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대도시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55개 대도시 인구는 세계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경제는 40%를 담당한다. 특히 영화, 음악, 공연예술 같은 창조산업 분야의 도시 지배력은 압도적이다. 문화접근성이 고학력, 고소득자를 도시로 불러 모으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도시에 힘이 쏠릴수록 경제가 발전하지만, 이 발전은 불평등을 가속화한다.

저자는 도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제안한다. 사람을 분산시키는 도로가 아닌 교외와 도심을 연결하고 경제활동이 집중되도록 도와주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렴한 임대주택도 확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사회통합적인 정책을 펼쳐야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각정거장·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 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공,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삼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